

강원지역 수해복구지원 활동실시

협회는 지난 7월 2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횡성군 소재 경성목양관(노인시설)에서 수해복구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활동에는 협회 김성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과 한수연 속초 연합회 민병기 회장 등 회원 5명이 참석하였으며, 노인시설 주변정리 및 농작물 배수로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협회는 금번 수해로 인하여 슬픔과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빠른 복구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 직원이 동참하여 수재의연금 2,541,000원을 모금하여 한국방송공사(KBS)에 기탁하였다.



-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마친후 기념촬영 -

협회는 지난 7월 2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횡성군에서 수해복구지원 활동을 실시하였다.



- 수해민가에서 자원봉사활동 장면 -

국제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글 교실방 운영



-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한글 공부모습 -

협회 고흥지부에서는 국제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 교실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한글 교실방 운영은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대부분 해태채취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설하게 되었으며 현재 6명을 대상으로 주3회 한글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기찬 고흥지부장은 향후 한글 교실방을 점차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